
 <b>교육부</b>				<h1>해명자료</h1> <p>2020. 1. 9.(목) 배포</p>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		
담당과	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	담당자	과 장	최흥윤 (☎ 044-203-7060)	
	방과후돌봄정책과		사무관	김진아 (☎ 044-203-7061)	
			과 장	오응석 (☎ 044-203-6745)	
			사무관	윤현아 (☎ 044-203-6412)	

## 2019년 초등 돌봄서비스를 39만 7천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한국일보(이윤주기자) / 2020. 1. 9.(목)
- 제목 : “초등생 아이 돌봐줄 곳이 없어요”  
엄마들 마지못한 ‘3월 장기휴가’

### <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>

-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2019년 기준으로 33만여 명이라고 송다영 인천대 교수 발표자료를 인용한 내용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.
-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초등돌봄 이용가능 인원이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39만 7,713명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  - ※ 초등돌봄교실 290,358명, 다함께돌봄센터 2,878명, 지역아동센터 98,407명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6,070명 등
- 아울러 교육부는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까지 53만 명 수준으로 초등돌봄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.